

第42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 議 會 議 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5月18日(木) 午前10時 開式

議事日程

1. 開 式
1. 國基에 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戰沒護國勇士에 대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議事係長 鄭恩秀)

(10時 開式)

○議事係長 鄭恩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습니다.

○議長 李敏衡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균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윽고 구청장님께서는 시간관계로 인사만 아까 드리고 폐회하는 날 오찬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겠다고 안부 전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 성북구의회의 임기만료

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구정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30년만의 지방자치 부활이니, 풀뿌리 민주주의니 하는 말처럼, 우리는 설레임도 있었고, 기대한 바도 컸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어져온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적 사고와,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미비는 의정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운데에도 우리 의회는 구민의 편에서, 구민의 목소리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0여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청원과 진정등 60여건의 민원을 심사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의 안정된 정착과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사명감과 굳은 신념을 안고 달려온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은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을 다졌음을 자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뿌린 민주주의 씨앗이 이제 그 뿌리를 더욱 깊고 단단히 내려서, 한층 밝고 희망찬 성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급석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의정 4년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 성북구 의회사에서 한 장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4년전 구민의 뜻을 모아 문을 연 이 자리에서, 저 북한산 자락에 올려퍼진 첫 의사봉 소리는, 분명 우리 50만 성북인의 꿈이요, 희망을 잉태하는 서곡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27일을 기점으로 열리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에는, 우리 초대의원님들의 열정과, 4년간 흘린 땀방울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성북의 밝은 미래가 새겨지고, 푸른 꿈이 영글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기약하면서, 그동안 의회 운영은 물론, 적극적인 의정 4년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여러 의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42회 임시회가 초대 성북구의회 의정 4년을 마감하는 회의인 만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성숙된 의회상을 구민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鄭恩秀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時11分 閉式)